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JAPAN

일본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일본-러시아 영토 갈등 심화와 물류·안보 리스크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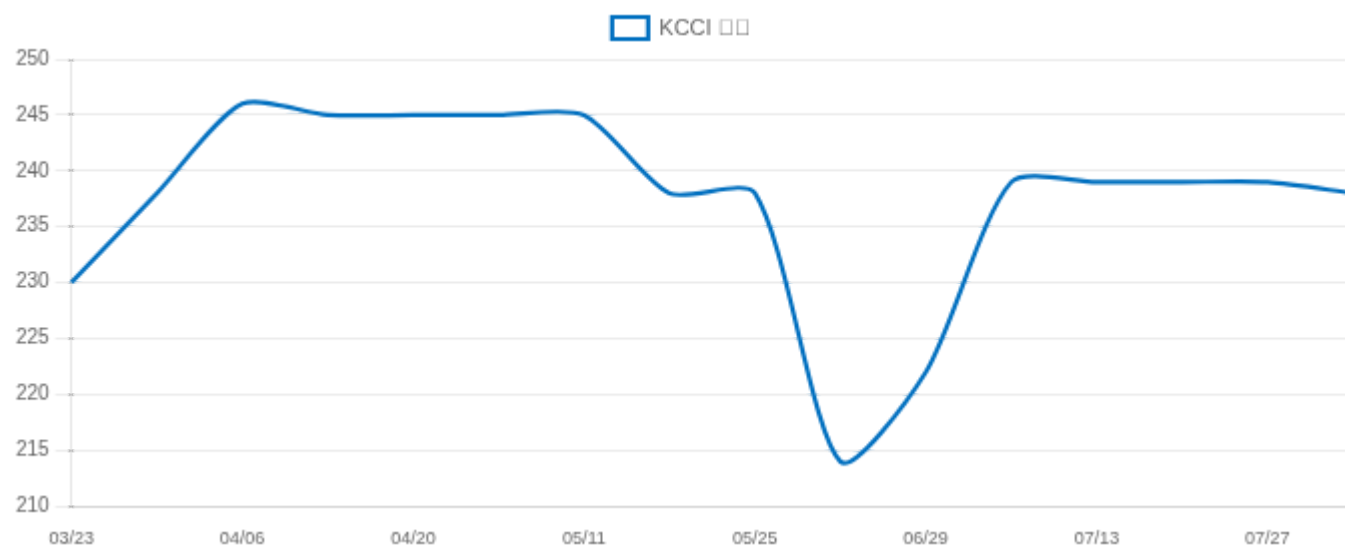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러시아의 쿠릴 열도 군사훈련으로 인해 급격히 경색되었으며, 북방 영토 문제가 동해·오호츠크해·북서태평양 해역 전반의 물류 및 안보 불확실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함.

러시아의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위축된 대러 접근성과 에너지·해상 운송의 취약성을 재확인시켰으며, 일본으로서는 자위대의 북방 경계 강화와 함께 연료·원자재 수급 다변화를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됨. 특히 북서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연결하는 해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일본의 대외 무역 물동량과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일본	238 \$/FEU	08/03	-0.4%	-0.4%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8/03

일본-러시아 영토 갈등 심화와 물류·안보 리스크

러시아의 쿠릴 열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일본과의 영토 갈등이 재점화되며, 동해·오호츠크해·북서태평양 해역의 물류 및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

러시아 국방부는 2026년 8월 5일부터 동해,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군함 60척, 항공기 30대, 병력 1만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발표함. 특히 쿠릴 열도 4개 섬 중 2개 섬 주변에서 다일간 실사격 훈련이, 나머지 2개 섬 주변에는 8월 29일까지 해상 출입 금지 구역이 설정됨과 동시에 8월 6일까지 미사일 시험 경보가 발령됨.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며 러시아의 군사적 입지 강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번 군사훈련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함. 러시아는 이 지역을 극동 사할린주의 일부로 행정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인프라 및 군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 외에도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군사 활동은 오히려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해당 해역은 북태평양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주요 항로의 접점에 위치해 있어, 군사훈련으로 인한 항행 제한과 긴장 고조는 상업 선박의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출입 금지 구역과 실사격 훈련은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에너지 수송선의 우회 항로 선택을 강제하여 운송 시간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오호츠크해 및 북서태평양은 러시아 산 원유·LNG·수산물의 주요 출하 경로이자, 동아시아-북미 항로의 일부로 물류적 민감도가 높은 해역임.

안보 리스크가 물류 신뢰도에 직접 전이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선사들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전쟁 위험 보험료 인상 및 특별 안전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일본 항만으로의 피더 서비스나 러시아 극동항에서의 환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는 미미한 수준이나 동북아 역내 물류에는 단기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됨.

- 러시아 군사훈련에 군함 60척, 항공기 30대, 병력 1만 3,000명 이상 참가 (2026년 8월 5일 발표 기준).
- 쿠릴 4개 섬 중 2개 섬에서 다일간 실사격 훈련, 나머지 2개 섬에 8월 29일까지 해상 출입 금지 구역 설정.
-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항의를 전달하며 대응.
- 훈련 해역은 러시아산 원유·LNG·수산물의 주요 수출 경로이자 동아시아-북미 간선 항로의 일부.
- 군사적 긴장 고조로 해당 해역 통과 선박의 보험료 인상 및 운항 일정 지연 가능성 증가.

전망

러시아는 영유권 과시와 군사적 입지 강화를 위해 쿠릴 열도 주변 훈련을 정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실효적 역지가 어려워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의 단기적 물류 리스크는 상존할 것이나,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우회 항로와 비상 계획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역내 물류 흐름의 재편보다는 운송 비용의 구조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시사점

선사 — 해당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 인상 및 안전 조치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노선 다각화 검토가 요구됨.

화주 — 러시아발/대상 화물의 운송 지연 및 비용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 재고 정책과 운송 계약 조건을 재점검해야 함.

항만 — 일본 북해도 및 러시아 극동 항만의 환적 물동량에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항만 물류 처리 능력 점검이 필요함.

포워더 — 고객사에 대한 대체 경로 제안과 실시간 운송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Japan Protests Russian Military Drills Near Disputed Kuril Islands (검색일: 2026-08-09)